



안보전략논단

www.korva.or.kr

| 발행인: 김진호 | 편집인: 박세현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 001 | 2021. 03. 01.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드러난 북한의 대남전략과 우리의 대응
문성묵

뉴노멀시대 전역이후 사회활동, 향군과 함께!
박상중

제대군인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이종섭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드러난 북한의 대남전략과 우리의 대응

문 성 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장)

북한은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에서 김정은은 자력갱생과 이민 위천(以民爲天)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군사 업적을 과시하고, 자신은 총비서 자리에 올라 김일성, 김정일 수준으로 지위를 격상시켰다. 미국에 대해 ‘최대의 주적’으로 간주하고 미국을 타격하기 위한 군사역량 발전에 집중할 것이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가 대미관계 개선의 조건임을 천명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연습 중지, 첨단전력 도입 중지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여기서 우리는 “국방력 강화를 통해 조국 통일을 앞당기자”면서 대남무력적화 전략이 불변함을 재확인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북한의 대남전략 및 의도 평가

김정은은 사업총화보고에서 핵무력 강화 업적을 집중 부각했다. 핵기술의 고도화, 소형화 및 경량화, 규격화, 전술 무기화를 달성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수중발사 탄도미사일(SLBM), 초대형 수소탄 개발, 전 지구권 타격 로켓트, 초대형 방사포, 첨단 전술핵무기 등을 완성했다고 자랑했다. 최초로 핵잠수함 개발도 공식화하고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정확도를 높여 나갈 것도 재확인했다. 중국 칭화대 자오통(趙通) 교수는 “향후, 북한이 전략과 전술 2중 핵 역량으로 미국의 군사간섭을 막고 한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 능력을 키워 최종적으로 북한이 희망하는 방식으로

(무력적화) 민족통일을 실현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래 국부적인 재래식 충돌과정에서 전술핵무기를 선제 사용해 전장의 열세를 반전시키거나 적(미국 등)을 심리적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핵 개발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결국 대남적화전략에 기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때문에 핵을 개발했다고 기만해왔다. 주한미군은 북침을 위한 주둔이며 한미연합연습은 북침 핵 전쟁연습이기 때문에 자위적 차원에서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변한다. 그러기에 유엔의 대북제재는 불법이며 핵 포기 요구 전에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먼저 포기하라 요구한다.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 한미연합연습을 영구 중단한다면 핵 포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한다. 결국, 한미동맹을 와해시켜 미국을 남한에서 내쫓아 핵으로 위협하여 적화 통일을 이루겠다는 심산이다.金正은이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 시키겠다”고 말한 것은 미국과 접촉의 징검다리로서 남한을 활용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제적 실익 확보를 시도한 것이다. 나아가 한미공조와 동맹을 이간하여 유리한 여건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핵 보유를 고집하면서 하노이 노딜 상황이 온 것이다. 결국金正은의 남북관계 발전 운운도 최근 우리에게 한미연합연습과 첨단무기 도입 중단을 요구한 것 또한 대남적화전략의 불순한 의도였음이 드러난 것이다.

우리의 대응전략

우리의 당면과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첫째, 한미동맹을 공고히 해야 한다. 마침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의 출범은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 그동안 중단, 축소되었던 한미연합연습을 제대로 시행해야 한다. 한미가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나토식 핵 공유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순간 죽음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도 늦출 수 없다. 우리 군의 자위역량을 강화하는데도 힘을 쏟아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대남적화시도는 꿈도 꿀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북한 비핵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 최대 경제위기에 처한 현재 북한의 상황은 핵 포기를 강요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될 수 있다. 공고한 한미 대북공조로 촘촘하게 대북압박을 이어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 제 역할을 하도록 국제사회와 힘을 합쳐 요구해야 한다. 핵을 안고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핵을 내려놓고 살 것인가를金正은이 선택하도록 강요해야 한다. 북한 핵을 완전하게 없애지 않고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도, 우리가 바라는 평화통일도 불가능하다.

뉴노멀시대 전역 이후 사회활동, 향군과 함께!

박 상 중

(국방대학교 교수)

(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신접종이 시작되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현재 상황이 제대로 진정되려면 짧게는 2~3년 길게는 7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한다. 그 어느 때 보다도 뉴노멀(New Normal)시대에 전역을 앞둔 직업군인들의 마음은 한층 더 무겁기만 하다. 갈수록 높아만 가는 전역 이후 재취업의 문턱이 더욱 실감 나는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직업군인의 삶을 마치고 중년 후반의 나이에 사회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은 설렘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게 된다.

취업의 어려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대군인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평생 직업군인으로 새벽 출근과 야근, 주말근무, 훈련 등으로 살아온 것이 몸에 배다 보니, 여유로운 삶이 낯설게 느껴진다. 일반적으로 전역간부들의 주요 관심사는 건강 관리, 취업, 여가활동 등 이다. 먼저,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며 건강은 가장 큰 화두이다. 100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가늘게 길게 살자”는 구호처럼 사물 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과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제활동 나이가 70세 이상으로 높아지면서 연금만으로 생활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군의 경력과 삶의 활력이 되는 취업에 매우 관심이 높다.

현재 취업문제는 사회문제 대두되어 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되었다.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예비역 장성 등 고위직 전역간부의 일자리 찾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다. 방산분야의 취업도 김영란법 등으로 제한되고, 군사학교수, 초빙교수, 안보학교수, 비상대비업무담당자 등 취업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 만큼 어렵다.

또한 사회봉사활동의 경우도 낯선 사람, 낯선 환경과의 만남에 자연스럽게 적응해야 하는데 평생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생활이 몸에 밴 전역간부들에게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전역간부들 대부분 사회와도 동떨어져 있어서 전역이후 사회로 내딛는 발걸음이 쉽지만은 않다.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제 2의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전역간부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제대군인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국방부 전직교육원의

사회에 동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등이 있지만 평생을 군에 봉사해오던 군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다.

재향군인회를 제대군인의 사회 첫 발판으로

사회에 진출해보니 가장 좋은 직업이 2~30년의 군 생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전역 이후의 구직활동은 잘하는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추천하고 싶다. 또한 재취업을 통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의 사회봉사에 대한 보람도 함께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평생 푸른 전투복을 입고 국가방위를 위해 헌신한 전역군인들의 삶이 건강하고 당당하며 아름다운 날들로 이어가기를 바라며 전역 이후 사회생활을 재향군인회와 함께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본다. 재향군인회는 제대군인의 친목도모와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그러므로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곳으로 재향군인회 만큼 최상인 곳은 없다.

재향군인회는 보훈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14개의 공법단체 중 대한민국 최고·최대 안보단체이다. 약 1,000만 명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본회와 함께 하부조직은 13개 시도회와 223개 시·군·구회를 보유하고 있으며, 22개 해외지회를 관리하고 있다. 재향군인회 각 조직에는 많은 전역군인들이 출신, 계급에 상관 없이 활동하고 있다. 군에서 익힌 지식과 생활태도를 사회생활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이다. 특히 군에서 공부하고 익힌 안보교육을 100% 활용할 수 있는 안보전략연구원이 있다. 연구원은 북한문제, 한미동맹, 국방정책, 외교안보 등 4개 분야 자문위원과 객원연구원을 운영, 주요 안보현안과 국방정책에 대한 연구와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재향군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66개 친목단체가 있다. 여기에는 성우회 뿐만 아니라 대령연합회, 간호장교회 등이 있으며 군별, 병과별, 계급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자신의 특성에 맞는 단체에 가입하여 회원활동도 할 수 있다.

제대군인들의 '사회의 고향' 같은 재향군인회를 제대군인들이 잘 활용한다면 재향군인회에는 젊은 피의 수혈로 변화에 두려움이 없는 조직이 될 것이고 제대군인에게 는 몸에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 할 수 있는 인생 2막 성공의 장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마음의 고향이 우리의 정서를 순화시켜주고 마음의 안정을 주듯이 재향군인회는 많은 제대군인이 의지할 수 있는 공법단체이면서 군의 제 2의 보루로 역할을 다하고 있기에 이를 적극 활용할 줄 아는 제대군인이 되기를 기원한다. 재향군인회에서도 전역군인을 위해 더욱 배려해 주면서 서로 상생하는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여 주기를 기대한다.

제대군인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방안!

이 종 섭

(동국대학교CRC연구교수)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제4차 산업혁명의 파고가 몰아치는 현 시점에 제대군인들에 대한 사회에서의 국가 경쟁력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식산업 일자리와 유능한 국가인적자원을 개발함으로써 강화될 수 있다. 이것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인적자원의 개발과 체계적 관리가 중요하다.

매년 5년 이상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은 약 5,800여명이며, 이중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3,500여명에 이른다. 이들 제대군인은 전역과 동시에 예비역 간부로서 예비전력의 핵심이며 군복무 중 국방안보분야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발휘해 온 유능한 국방안보분야 민간전문가로 인식되고 있다.

제대군인 국가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개발

이러한 관점에서 국방안보분야 경쟁력 강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대군인도 국가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해야 할 중요한 인적자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군인의 군복무중 역량개발과 제대 후 원활한 사회복귀 및 국가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인적자원관리 및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제대군인의 전문성 활용과 전직지원은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가 중심이 되어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조직을 두고 전직교육, 취업알선, 사회적응교육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국방안보 분야에 제대군인의 전문성 활용이 미흡함은 물론 제대군인의 취업률 또한 50% 대 수준으로 저조하다. 장기간의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들은 연령정년, 계급(근속)정년 등으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생애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시기인 45세를 전후¹⁾하여 전역한다.

군 직업 특성상 상당히 긴 기간을 일반 사회와 격리된 채 생활한 제대군인은 일반 사회에 대한 적응이 미쳐 끝나지도 않은 채 일반 구직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힘들게 취업경쟁을 한다. 그 결과 매년 약6천여 명의 중·장기 복무자들이 전역하고 있으나,

1) 매년 제대군인의 전역 당시 평균 연령은 약 44.6세.

최근 사회 취업구조의 고학력화, 전문화 및 비정규직화, 여성취업 확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증가 등으로 악화된 전직환경이 더욱 구조화되어가고 있어, 전직할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막연히 취업유망 직종별 자격증 취득 위주로 실시하는 전직 교육 중심의 기존 전직지원 체계로는 제대군인의 재취업률 향상이 근본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선 자격증 취득교육 후 일자리를 탐색하여 경쟁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대군인 전직지원, 취·창업 지원 패러다임을 군복무중 직업능력 개발과 선 일자리 제공 후 직무교육 및 배치 개념으로 전환해야만 한다. 제대를 하기 전에 군 경력을 활용하여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군 관련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군복무중 직업역량을 개발하고 이를 인증할 수 있도록 군 경력·역량평가인증 시스템과 경력·역량별 인재풀(Pool)을 구축하여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으로 관리하고, 맞춤형 전직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 (V-HRMS)”²⁾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일자리 정보와 개인의 역량 정보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일자리에 맞는 맞춤형 전직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전직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제대군인 전직지원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실태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V-net, V-now와 국방부 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Mndjob 등이 있으며, 각 군에서 자체 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각각 별도로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제대군인 전직지원 정보시스템은 운영 기관별로 각각의 정보와 자원이 제한되어 전직지원 효과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식별되고 있다. 먼저, 군 관련 일자리 정보가 부족하고, 선발시기가 민간일자리와 중복되어 제대예정 군인의 전직교육 참여가 낮은 원인이 되고 있다. 상당수의 제대군인이 군 관련 일자리에 높은 기대와 노력을 집중하고도 취업에 실패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은 부족한 민간 일자리 취업역량마저 준비하지 못하고 대부분 전직에 실패하거나 빈번한 이직에 따른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제대군인의 사기저하로 연결되고 있다.

전직지원, 각급 기관별 적극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활용

이상과 같이 제대군인 전직지원을 위하여 각급 기관별로 적극적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제대군인 관점에서 보면 각각의 정보와 자원 제한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고 상시 강력한 군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군인들이 전투임무수행에 유능한 군사전문가이자 군 복무 중 고용

2)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V-HRMS, Veteran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 제대군인 전직정보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말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군인의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며, 군 복무 중에 익힌 기술과 역량을 제2의 인생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과 인재풀을 구축할 수 있는 유형별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을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정책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 구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대군인 인적자원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인 ①일자리정보시스템 및 ②인재정보시스템과 관련된 D/B 구축 및 정책과제 개발과, 이들 ③시스템 구축을 위한 미스터플랜과 ISP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 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02)499-0201/korvass0201@naver.com